

6월 민주항쟁, 20년입니다

민주花 입니다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 민주化 입니다

당신이 꽃 피운 민주花 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그 열정, 그 참된 의미를 되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으로 활짝 피워야 합니다.

■ 함께 하는 '20년 사업' 안내

1. 6월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사업
2. 민주주의 시민축제
3. 릴레이 87 루데이(부문/지역)
4. 함께하는 유월햇살(시민들과 호흡하는 콘텐츠 개발)
5. 디지털 민주세상(함께 불러요, 아침이슬)
6. 한국 민주화운동의 국제화 사업
7. 한국 민주화운동 자료집 제작 사업



6월민주항쟁
20년사업추진위원회
1987-2007

2007년 4월 9일(월) 오후 3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서대문 독립공원 내)

아들아 딸들아,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의 소담한 밤그림이 되고 싶었다
새연필 싸공책이 예쁘게 쓴 책가방이 되고 싶었다
친구들 나눌 한줌 사랑이 되고 싶었다
그기내 꿈이었다
그리워한 세상이었다

(이철수, 최백아, 윤사중 그림이며 재직된 민화 '일서기'에 담긴 글귀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

4월혁명이기 새세대 청년으로
남북통일을 외쳤던 그들!
5.16군사쿠데타의 압제를 뚫고,
민주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싸우던 그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형장의 마음으로 사라져가야 했던 그들!
이제 우리 앞에 다시 살아오네,
칠륙 길었던 침묵야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민주와 통일, 평화와 인권으로 되살아오네.



주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서 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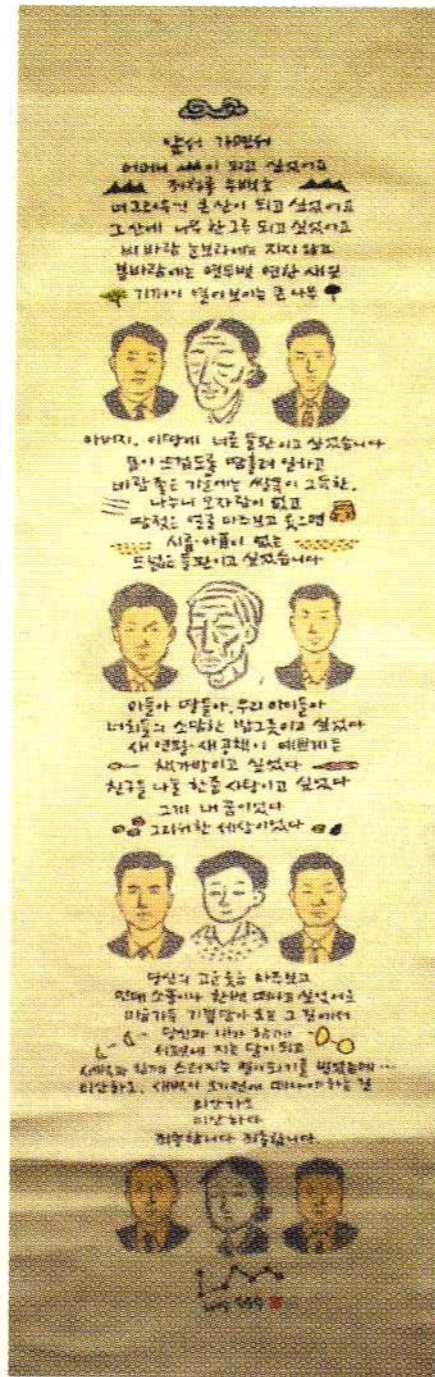
이철수 화백

어머니, 산이 되고 싶었어요.
좌청룡 우백호
너그러우신 큰 산이 되고 싶었어요
그 산에 나무 한 구루 되고 싶었어요
비바람 눈보라에는 지지 않고
봄바람에는 연두빛 연한 새잎
기꺼이 열어 보이는 큰 나무

아버지, 이 땅에 너른 들판이고 싶었습니다
몸이 뜨겁도록 땀 흘려 일하고
바람 좋은 가을에는 쌀독이 가득한,
나누니 모자람이 없고,
땀 젖은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
시름·아픔이 없는
드넓은 들판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딸들아,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의 소담한 밥그릇이고 싶었다
새연필·새공책이 예쁘게 든 책가방이고 싶었다
친구들 나눌 한줌 사탕이고 싶었다
그게 내 꿈이었다
그리워한 세상이었다

당신의 고운 웃음 마주보고
먼데 소풍이나 한번 떠나고 싶었어요
마음 가득 기쁨 담아오는 그 길에서
당신과 내가 함께
서편에 지는 달이 되고
새벽과 함께 스러지는 별이 되기를 빌었는데...
미안하오, 새벽이 오기 전에 떠나야하는 길
미안하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목 : 앞서 가면서 그림번호 : 2005-01400
제작연도 : 2005년 크기 : 32cm×115cm

* 위 판화를 구입하실 분은 인혁당대책위 (02-777-06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판화는 액자가 아니라 족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식순

사회_ 문성근

여는 공연 노래를찾는사람들

민중 의례 사회자

여는 시 청화 스님

추도사 1 김수환 추기경

추도사 2 박형규 목사

정부 추도사 김성호 법무부장관

추모노래 흥순관

추도사 3 전창일

추도사 4 김지하 시인

추모공연 민족춤패 "출"

〈사형장으로 이동〉

추모시 김정환

헌 화

〈다시 본 무대로 이동〉

유족말씀

함께 부르는 노래

닫는 말씀

인혁당재건위 사건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를 함께 준비한 단체들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화추진회자유실천위원회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대구경북민주동우회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 불교인권위원회 / 사월혁명회 / 성공회대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 성공회대민주자료관 / 5.18기념재단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법국민위원회 /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혁당재건위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중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KNCC정의평화위원회 / 한국교회인권센터 / 한국민족극운동협회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진보연대(총 30개 단체)

2007년 오늘, 1975년 그날

70년대 그 어두운 죽음의 시대. 슬한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죽음이 되어갔던 시대.
그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언 우리는
죽음과 공포에 익숙해졌다. 언제든
죽을 것 같은, 늘 죽고 싶은
공포에 시달렸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역사, 그것은 죽음이었고, 죽음이라는
태풍의 눈 속에 우리는 있었다.

그날, 여덟 명의 사내는 그렇게 죽었다.

우홍선, 1930년 3월 6일, 송상진, 1928년 10월 30일, 서도원, 1923년 3월
27일, 하재완, 1932년 1월 10일, 이수병, 1938년 4월 17일, 김용원, 1935년
11월 10일, 도예중, 1924년 12월 25일, 여정남, 1944년 5월 7일

생.

사형선고는 일사천리로
이어지고, 방청가족들을 한데 뭉치게 한 것
다리가 후들거리는 밑모를 공포를
이겨낸 것은 말이 아니고 울음이었다. 한 여자가
울며 우산으로 의자 등받이를 두드리고
같은 열이 똑같이 따라 하고 모든
방청객들이 따라 하고 울음을 삼킨 쉼의
집단적인 절규가
너무 질서정연해서 스스로 소름끼쳤다.

그러나, 뭐지? 그들의 대성통곡을 아주
사소한 울부짖음으로 돌리고
위로하는, 거대한, 더 끔찍하지만 운명처럼 스스로를 감싸는 이것은, 뭐지?

안개 낀 새벽, 눈을 형겅으로 가린 채
끌려간, 느티나무 한 그루 파리하게 치솟은
사형장 행렬.

대낮에도 황사가 심하고, 싸늘하고 음산한
안개를 닮은 행인들 속으로,
사형수 행렬은 끊임없이 섞여 들었다.

이수병,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여정남

그날, 1975년 4월 9일 새벽
여덟 명의 사내는 그렇게 죽었다.

2007년 오늘, 1975년 그날

그들의 인혁당 조직 관련 혐의는
대한민국
법 앞에 영영 무죄다.

그 전에 그들은
역사와 민족 앞에 영영 무죄다.

그 전에 그들은
죽음 앞에 영영 무죄다.

이제 그들은
죽음 속에 자유다.
집단적으로 자유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의
죽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

무고해서 더 참혹한 죽음의
순정한 삶.

만세.

2007. 4. 9. 그 분들의 명복을 뒤늦게 빌며, 김정환

인사말

오늘 인혁당재건위 민주열사 32주기 추모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은 굴절된 우리 현대사를 바로 세우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1975년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여덟 명의 생목숨을 앗아갔던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제 간데없고, 유족들에게 32년 동안의 세월은 너무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1998년, 저희 대책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도 혹시 이일로 인해 유족들의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힘은 강했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더니, 이제는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진실을 지지해 준 국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32년간 이 나라에 치욕의 딱지처럼 붙어 있던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시절 무고하게 희생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거짓이 껍질을 그대로 덮어쓴 채 영원히 남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 근대화라는 미명을 앞세워 오만방자했던 박정희 정권이 언론과 법원을 하수인으로 부리며, 저질렀던 수많은 사건들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길교수 사건이 그랬고, 이제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리하여 다시는 이 나라에 부정한 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탄압하는 일은 다시는 생겨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열사들이 가시고 난 후, 유족들의 울부짖음을 남들처럼 외면하지 않고 온갖 고초와 시련에 동참하며 아픔을 같이 해 오신 여러 어르신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에 이어 가신님들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인권 민주 평화통일의 염원을 받들어 그 길에 흔들림 없이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9일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일동

사법사상 암흑의 날!

4.9 민주열사와 그 후의 열사들



서도원 선생

1923 경남 창녕군 출생. 진주고보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하재완 선생

1931 경남 창녕 출생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도예종 선생

1924 경북 경주시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김용원 선생

1935 경남 함안 출생. 서울대 물리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우홍선 선생

1930 경남 울산 출생. 육군대위 예편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송상진 선생

1928 대구 동구 출생. 대구대 경제학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4.9 민주열사와 그 후의 열사들

이수병 선생

1936 경남 의령 출생.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으로 사형



여정남 선생

1945 대구 중구 출생. 경북대 정외과 수료
1975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 으로 사형

유진곤 선생

1937 경남 진해군 출생. 부산사범 졸업
1988 인혁당재건위 사건, 고문후유증으로 운명



이재문 선생

1934 경북 의성 출생. 경북대 정외과 졸업
1981 남민전 사건으로 복역 중 운명

전재권 선생

1927 경북 상주 출생. 동아일보 기자
1986 인혁당재건위 사건, 복역후유증으로 병사



신향식 선생

1934 전남 고흥 출생. 서울대 철학과 재학
1982 남민전 사건으로 사형

장석구 선생

1927 서울 동대문 출생. 단국대 졸업
1975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복역 중 운명



정만진 선생

1940 민주 흑룡강성 출생. 영남대 졸업
1998 인혁당재건위, 출옥(82년) 후 운명

이태환 선생

1924 대구 북구 출생. 대구공고 토목과 졸업
2000 인혁당재건위, 출옥(82년) 후 운명



조만호 선생

1935 경남 의령군 출생
1996 인혁당재건위, 출옥(82년) 후 운명

이재형 선생

1939 경북 상주 출생. 경북대 경제학과 졸업
2004 인혁당재건위, 출옥(82년) 후 운명



제정구 선생

1944 전남 고성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1999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김병곤 선생

1953 경남 김해 출생. 서울 상대 재학
1990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김 윤 선생

1952 서울 출생. 경기여고·서강대 영문과 재학
2004 민청학련, 출옥 후 운명

강구철 선생

1954 충북 옥천 출생.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2002 민청학련, 오랜 투병생활 끝에 운명



박정희와 인혁당! 그리고 무죄판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사건은 64년과 7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그래서 64년의 일은 '1차 인혁당', 74년의 일은 '2차 인혁당'이라고 부른다. 두차례의 인혁당사건은 모두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질 시기에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직사건으로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1차 인혁당과 6.3한일회담 반대투쟁

1차 인혁당사건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야기된 '6.3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무마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다. 중정은 도예종외에 57명의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학생들을 배후 조정하여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일으키고 사회혼란을 틈타 공산혁명으로 현정부를 타도하려 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담당 공안부 검사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거부하였으며, 정권의 압력에 사표까지 제출하였다. 결국 숙직담당검사가 엉터리로 기소를 하였으나, 수감자들에 고문을 가한 사실마저 드러나 기소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말았다.

2차 인혁당과 유신헌법 반대투쟁

74년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장기집권의 꿈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유신의 헛된 꿈에서 깨어난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전국적인 유신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박정희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2차 인혁당사건을 조작하였다.

먼저, 당시 학생운동의 '4월 3일 봉기계획'을 알고는 학생운동의 상층부였던 이철·유인태 등을 비롯하여 180여명을 체포 기소하였다. 이것이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이다. 그리고는 이들의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공산혁명을 일으켜 현정부를 타도하려는 지하조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였다. 이 지하조직이 2차 인혁당이라고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원회' 이었다.

이때는 박정희는 1차 때와는 달리 법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사건 관련자(23명)들은 '내란예비 음모 및 내란 선동'이라는 엄청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형 8명·무기징역 7명·15년 이상의 징역형 8명 등 하나같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게다가 1심 후 10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75년 4월 8일,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 여덟 명에 대해 사형을 확정하였고, 놀랍게도 다음날 새벽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다. 이날의 사형집행은 조작의 전모가 밝혀지길 두려워한 박정희에 의한 폭거였고, 결국 우리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비극이 되고 말았다.

인혁당 희생자! 그들은 누구였나

이렇듯 1,2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의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 벌어진 사건들이었다. 특히 2차 인혁당 사건에서는 정권대항세력을 뿌리째 뽑아 없애려는 박정희의 잔혹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다음 발표된 긴급조치 9호(75년 5월 13일)는 유신시대의 최악의 법이었다.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정희의 권력야욕에 맞서 싸웠던 그들은 누구였던가?

1,2차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분들은 모두 4.19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운동'에 나섰던 분들이다. 4.19혁명 후 새롭게 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경제중속을 가져올 2.8 한미경제협정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흩어져 있던 변혁운동세력은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을 결성하여 하나로 모이고,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한 민족통일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6.25전쟁 뒤, 반공을 국시로 삼은 이승만 정권치하에서 '통일'이라는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 시기에 그들은 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5.16군사쿠데타는 이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으며 이들은 다시 박정희 군사파쇼정권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다.

1차 인혁당 사건에 관여했던 도예중, 김용원, 우홍선, 이재문 선생. 6.25전쟁 이전부터 변혁운동에 참여 해오셨던 하재완, 장석구, 전재권, 이태환 선생. 4.19당시 청년운동과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다 5.16쿠데타 이후 수감되었던 이수병, 정만진. 그리고 74년 민청학련 지도부였던 여정남선생 등 이들의 경력 중 일부만 보아도 우리 변혁운동의 구심점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뒷장에 계속)

무죄판결, 그리고 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

지난 2007년 1월 23일, 박정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며 여덟 명의 생목숨을 앗아갔던 법원이 나서 32년 전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공판조서는 물론이요 유언까지 조작되었던 그들의 죽음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다.

인혁당사건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회복의 움직임은 14년이 지난 89년에야 시작됐다. 대구와 서울 경희대에서 인혁당 열사 추모제가 열렸고 열사들이 다녔던 학교와 묘소에 추모비가 건립되었다. 그 후 98년 4월 9일 천주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돈명·문정현)가 발족하였다.

그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2년 9월)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2005년 12월)가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이 고문조작' 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재심을 개시(2005년 12월)를 결정하였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군사정권 18년간의 여러 인권유린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문 조작사건이다. 또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격동과 변혁의 시기에 깨어있는 의식으로 선구적인 삶을 살다간 분들이었다. 이제 열사들이 간직하고 떠났던 자주 민주 통일의 비원을 가슴에 두고, 그 순결한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참민주인의 모습일 것이다. <끝>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 개요

- 2002년 12월 10일 재심신청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심신청함.
- 2003년 11월 21일 재심개시 심리진행
- 2005년 12월 27일 재심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이기택 재판장)
- 2006년 3월 20일 1차 공판(문용선 재판장)
재판부, 검사, 변호사측의 모두발언.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진행의사 밝힘. 검사 공
- 의의 대변자 언급. 변호사 인혁당사건은 중정의 조작임을 언급.
- 2006년 4월 24일 2차 공판
검사측이 방대한 자료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주문함.
- 2006년 6월 20일 3차 공판
증인 채택 심리 진행
- 2006년 7월 3일 4차 공판

민청학련 관련 재판자료들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자료들을 가지고 증거채택 여부를 따짐. 특히 공판조서는 변호사측의 반대로 앞으로 증인신문과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기로 보류함.

2006년 7월 24일 5차 공판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나경일, 강창덕 등 사건관련자들이 증언함. 증언자들은 고문이 있었으며, 조사관조서·검찰조서·참고인조서·진술서 등에 날인한 서명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강압적으로 날인된 것이라고 증언. 또한 공판조서도 변조되었다고 증언.

2006년 8월 14일 6차 공판

강순희, 이영교여사와 관련자 이창복, 김한덕, 임구호 선생이 증언함. 유족들은 남편들이 연행당할 때 '구속통지서' 받지 못하였고, 연행사실을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증언.

2006년 8월 28일 7차 공판

이○○(대구 경찰국 소속), 전○○(서울시 영등포경찰서 소속), 라○○(서울시 성북경찰서 소속) 등 당시 중정에 파견되었던 전직 경찰관들이 증언함. 이씨는 "중정 간부 윤계장이 조사관들을 모아놓고 이용택 6국장이 작성한 인혁당 조사계획서에 박정희가 사인한 것을 보여 주며 걱정 말고 외꾸에 넣으라고 말했다"고 증언함.

2006년 9월 11일 8차 공판

민청학련 관련자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유인태 의원이 증언함. 1974년 4월3일의 시위 계획(세칭 민청학련사건)은 유신헌법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연장수단으로 유신헌법이 만들어졌기에 이를 반대하기 위해 벌인 시위였다고 증언함.

2006년 9월 18일 9차 공판

김지하 시인과 중정파견 경찰관 신흥수씨, 그리고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재직했던 박형식, 최양호, 이택모, 이정희씨가 증언함. 김시인은 인혁당은 민청학련을 배후조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학순 주교로부터 120만원을 받아 조영래에게 전달했는데, 2천원을 준 인혁당이 배후세력이 되었다고 조작을 주장함. 교도관 최씨는 "중정 요원들의 가혹행위는 수시로 있었으며, 조사를 받고오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피의자들을 보고 고문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함.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26명

인혁당(25명)	사형(7명)	서도원, 도예중, 우홍선,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김용원
	무기(7명)	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징역20년(4명)	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
	징역15년(4명)	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징역5년(2명)	장석구, 이현세
민청학련(1명)	수배(1명)	이재문
	사형(1명)	여정남

2006년 10월 16일 10차 공판

민청학련 관련자 황인성,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등 증언함. 민청학련은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다고 증언. 인혁당 관련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증언. 중정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증언함.

2006년 10월 23일 11차 공판

전 검찰서기 김○○(당시계급 상사), 계○○(당시 군무원 주사보), 김○○(당시계급 상사)씨와 전 군법정서기 김○○(당시 군무원)씨가 증언함. 이들은 고문 등 폭력행위를 보지 못했으나, 구타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간접 증언함. 또 법정서기 김씨는 공판조서가 재판이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증언하여 공판조서가 법정에서 작성되지 않았음을 시인함.

2006년 11월 16일 12차 공판

민청학련 관련자인 나병식, 서중석씨와 당시 군법정 소속의 군인이었던 승○○(당시 상사, 검찰조사 입회서기), 조○○(당시 상사, 법정입회서기) 씨가 증언함.

2006년 11월 13일 13차 공판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인 이종구, 강영원, 김진규 씨, 그리고 의문사조사위 조사관 유봉인씨가 증언함. 유봉인씨는 의문사조사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며 당시 조사내용을 모두 녹화해 두었다고 증언하여 의문사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증언함.

2006년 11월 27일 14차 공판

당시 군사법정 소속의 군인 조○○ 씨가 증언함.

2006년 12월 11일 15차 공판

그동안 검사측과 변호사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채택여부 진행함.

2006년 12월 18일 재심결심 공판

국정원과거사발전위의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함.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최후변론이 진행. 검사의 논고에서는 이례적으로 구형을 내리지 않음. 변호사측은 최후 변론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은 무죄임을 강조함. 특히 김형태변호사는 “유신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 것이었다. 유신헌법 제정 직전의 헌법이나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에도 맞지 않은 위법사항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위헌적인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투쟁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말함.

2007년 1월 23일 1심 무죄선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중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예비음모의 점, 반공법위반의 점, 피고인 여정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내란예비음모의 점 및 반공

법위반의 점 중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작 반포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 이후 검찰의 항소가 없었으므로 1심 재판결과가 확정됨.

2006년의 사계



재심이 시작되기를 바라던 3월 어느날, 우홍선씨의 모역을 찾았다.



무더위를 피해 법원청사 안에서 재판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가족들



여름을 마감할 무렵, 가을을 불러 오는 비가 내리던 날



결심공판을 마치고, 좋은 소식이 올 새해를 기다리며...

구명운동과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 1974.4.3 민청학련 시위관련 박정희 특별담화 발표 후, '긴급조치 4호' 선포
- 1974.4.25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 를 지목 후 관련자 구속
- 1974.7.9 강신옥 변호사 법정 구속
- 1974.7.11 비상보통군법회의 사형 선고
- 1974.11.4 비상고등군법회의 항소 기각
- 1974.11.8 구소자 가족 8인 탄원서 제출
- 1974.12.9 부인 7인 탄원서 제출, 15인 사회저명인사 서명(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이병린변호사, 김관석 목사, 이해영 목사, 윤반용 목사, 박창균 목사, 최명환 목사, 문정현 신부, 지정환 신부, 강신명 목사, 신현봉 신부, 이태영 변호사, 서남동 교수, 함석헌 선생)
- 1974.12 조지오글 목사 목요기도회 등 신원운동으로 강제출국
- 1975.1.6 신·구교 주한외국인 선교사 60인 대통령, 대법원장에 무죄 탄원
- 1975.2.6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현실고발' 성명 발표. 인혁당 관련자에 대한 고문협박 규탄
- 1975.2.19 구속자가족협의회 및 동 후원회 공동성명. 고문위계에 의한 정치적 조작극임을 규탄
- 1975.2.24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구속자가족협의회 후원회 '인혁당사건 진상을 조사·발표하면서', '인혁당의 진상은 이렇다' 성명 발표
- 1975.3.13 김지하 '고행...1974' [동아일보]에 인혁당 수기 발표 (75년 2월 26일) 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
- 1975.3.6 구속자가족협의회, 목요정기기도회 공동성명 TV방송 간첩왜곡보도에 항의성명
- 1975.4.8 대법원 상고기각, 형 확정
- 1975.4.9 이수병,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형 확정 18시간 만에 서대문구치소에서 운명하심 제네바 국제법학자협회 '사법사상 암흑의 날' 로 선포



- 1975.4.10 국제사면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정권의 비이성적 만행 규탄
- 1975.4.30 제임스 시노트 신부, 인혁당 구명운동으로 강제출국
- 1975.5.3 박형규, 김관석 목사 등 보복구속
- 1975.5.4 김지하 양심선언 발표(조정래 초고), 인혁당사건 진상 공개 촉구
- 1977.8 김수환, 윤보선, 김관석, 이천환, 함석헌, 양일동, 김철 등 7인 재심청구 진정서 제출
- 1979.10.9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사건' 발표
- 1982.12.25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생존자 전원 출소
- 1988.12.1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다룬 연극 '4월 9일' (작·연출 이상우) 연우무대에서 공연
- 1989.4.9 대구 경북대 강당에서 14주기 추모제 진행(주최: 민자통, 대대협 / 문병란 시인 '의인' 낭송)
- 1991.3.2 이수병선생 기념사업회 결성
- 1993.11.3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결성
- 1995.4.8 서대문독립공원(옛 서대문형무소 자리)에서 20주기 추모행사
- 1996.6.18 경찰, 경북대 이재문 여정남 열사 추모비(91년 4월 9일 제막) 강제탈취
- 1998.11.9 '소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돈명, 문정현) 발족
- 1999.8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잊혀진 죽음 - 인혁당' 방영
- 2000.10.27 제5회 인권영화제에 인혁당사건을 다룬 다큐영화 '4월 9일' (감독 김태일, 제작 푸른영상) 출품
- 2001.3.17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상범)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 직권조사 개시
- 2001.12.7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발간
- 2002.9.12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사건 고문조작 사실 발표
- 2002.12.10 1975년에 사형당하신 여덟분 열사들에 대한 재심 청구(서울지방법원)
- 2003.11.24 인혁당사건 재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 개최



- 2004.4.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민청학련 사건 30주년 · 인혁당 희생자 29주기 추모행사' 진행
- 2004.11.5 대구지역 민교협 · 민변에서 "인혁당 사건과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인권세미나 개최
- 2005.1.13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협의회(위원장 오충일), 인혁당 사건 조사발표
- 2005.2.1 소설가 '김원일' 인혁당 사형수를 소재로 한 소설 『푸른흔』 출간
- 2005.4.8 명동성당 교스트홀에서 인혁당 희생자 30주기 추모제 개최
- 2005.4.9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4.9통일열사 30주기 추모제' 개최
- 2005.12.7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협의회,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고문조작 사실 인정
- 2005.12.27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 인혁당 재심 개시 결정
- 2006.1.23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위원회'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자 23인 중 16인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
- 2006.3.20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사건 재심 1차 공판 진행
- 2006.4.8 서울 서대문독립공원에서 31주기 추모제 진행
- 2006.4.9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4.9통일열사 31주기 추모제' 개최
- 2007.1.23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인혁당사건 재심 무죄판결
- 2007.2.21 경희대학교, 고이수병선생(동대학 경제 58)에게 명예졸업장 수여
- 2007.4.7 대구 2.28기념공원에서 '4.9통일열사 32주기 추모제' 개최
- 2007.4.9 서울 서대문독립공원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32주기 추모제 진행



앞서가면서

이철수 시 · 백창우 곡

Key = Cm/Eb * ① ② ③ ④ 를 제각기 다른
 Capo = 3 느낌과 빠르기로... 시따라 숨따라...
 Play = Am/C

①

4 Am⁹ Em Am⁹
 어머니, 산이 되고 싶었 어 요

C E7 Am C Dm⁷ G⁷
 좌정릉우백호 - 너그러우신 큰 산이 - 되고 싶었 어 요 -

Am C Dm Am Em Am Am⁷
 그 산에 - 나무한 그루 되고 싶었 어 요 -

F Am C Dm⁷ G⁷
 비바람 눈보라에 는 지지 않고 봄바람에 는 연두빛 연한 새 잎 -

Am Dm F Am⁹ 3
 기꺼이 - 열어보이는 큰 나무

② Am⁹ Dm C Em Am
 아버지, 이 땅의 너른 - 들 판이 고 싶었 습 니 다 -

C Am C Dm Am Am⁹
 몸이 뜨겁도 록 땀 흘려 일 하고 바람 좋은 - 가운데 는 -

C Dm⁷ G⁷ C E⁷ Am
 쌀독이 - 그 - 특한 - 나누니 모자람이 없 고 -

C G C Em A⁷ Dm
 땀 젖은얼 굴 마주보며 웃으면 시름, 아픔이 없 는 -

C Em C E⁷ Am⁷
 드넓은 - 들 판이 고 싶었 습 니 다

③ Am Em Am
 아 들 아, 딸 들 아, 우리 아이 들 아,

C Em Dm⁷ G⁷
 너희들의 소담한 밥그릇이 고 싶었 다

C Dm Em Am Dm Dm⁷ G⁷
 새연필 새공책이 예쁘게 든 - 책가방이 고 싶었 다

Am Em Am Dm E⁷
 친구들 나눌 한 줌 사랑이 고 싶었 다 그 깨

Am E⁷ Am Dm F Em
 내 꿈이 었 다 - 그리워 한 - 세상 이 었

Am Am⁷ Am Am⁷ Am Am⁷ Am Am⁷
 다

④ C G C G F C Am Dm⁷ G⁷
 당신의 고운 웃음 마주보고 - 먼 데 소풍이나 - 한번 - 떠나고 싶었 어 요 -

C G F D⁷ G
 마음 가득 기쁨 담아 오는 그 길에서 당신과 내가 함 - 께

Am Em Dm G Am Em⁷ Am
 서편애지는 달이 되고 - 새벽과 함께 스러지는 -

F D⁷ G⁷ C Am
 별이 되기를 빌었는 때, 미안하 - 오 새벽이 오기 전에 - 떠

D⁷ G rit. C G⁷
 나야 하는 길 - 미안하 - 오 미안하 다 죄송합니

C G⁷ C
 다 죄송 합 니 다